

# 개척자들

press@thefrontiers.org



세계난민의 날을 기억하며 로힝야 난민 후원을 위한 플리마켓 행사가 제주 강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1  
JUL/AUG

통권185호





### [표지 이야기]

지난 6월 20일에 세계난민의 날을 기억하며 로힝야 난민 후원을 위한 플리마켓 행사를 제주 강정에서 열었습니다. 방역 수칙 관 계로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 주셔서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로힝야 난민 촌의 RYC와 RTL, 그리고 RTS 친구들도 캠페인 부스의 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한국사회에 대신 전하기도 했습 니다. 그저 처음엔 난민의 날, 난민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보자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플리 마켓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을 통해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우기가 찾아온 난민촌에 우산과 신발을 선물하고 학 교 건물을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theFRONTIERS

목차		
[카툰] 돈의 값어치	이형우	2
[샘터 묵상] 아프간의 나의 할머니 친구가 그리워지는 시간 앞에서	류복희	4
[평화 신학] 코로나 바이러스, 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가?	송강호	6
[평화 박물관] 군산 평화박물관 방문기	윤혜성	8
[평화도서관] 꿈 선생님 미나가 나누는 꿈도서관 이야기	미나	10
[공평해 일지] 육지로 올라왔다 바다로 간 배	타마	12
[방문자 에세이] 그리스도인의 직무	이재관, 이재혁, 이종민	15
[그림 이야기] 돌이킬 수는 없어도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어진겨레	16
[평화공동체] 60 이후의 삶은..	조정래	18
[공동체 나눔] 로힝야에서 온 편지	로힝야팀	20
[공동체 나눔] 제주 & 공평해에서 온 편지	제주팀	22
[공동체 나눔] 아체에서 온 편지	아체팀	24
[공동체 나눔] 나무숲 세움터 이야기	조이안	26
[살림살이] 5월~6월 재정 보고	조정래	28
[광고] 공동체소식	편집팀	30
[신간알림]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평화를 위한 순종	편집팀	32



# 아프간의 나의 할머니 친구가 그리워지는 시간 앞에서

류복희



**아**프간 피난민촌의 슬라맛 촌장님에겐 누님이 계셨다. 나는 그분을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분의 방에서 함께 지냈다. 방 안에는 종이 상자에 넣어 둔 옷이 작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작은 나무 선반 위에는 코란(이슬람 경전)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다른 세상에서 온 나를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다. 물어보시는 것도 많았고 이웃을 만나러 가실 땐 나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셨다. 할머니는 잠이 없

으신 지 어스름 새벽녘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시곤 나를 깨워 새벽별이 아직 초롱초롱한 들판으로 물 바가지를 가지고 따라오라 하셨다. 화장실이 없는 그곳에선 해가 뜨기 전 불일을 보아야 했다. 새벽의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촘촘히 떠 있는 별들을 잠깐 보고 있으면 이내 어둠이 눈에 익어지고 서로의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면 살짝 웃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보디가드가 되었다. 할머니와 함께 걸으면 남, 녀 할 것 없이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할머니가 이곳에서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분이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챙겨 주셔서 피난민촌에 사는 것이 심정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이불들을 햇볕에 널고 먼지를 털고 나뭇가지 줍는 일들을 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히잡을 벗으시더니 당신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히잡을 벗으시는 것도 놀라웠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시는 것도 놀라웠다. 주위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무서워하셨다. 모두들 사진에 찍히면 영혼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경계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히잡을 벗으시면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신 것이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쑥쓰러운 모습으로 사진찍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점 찍힌 당신의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여러 다른 자세를 취해 보이셨다. 몇 벌 안되는 옷과 히잡을 번갈아 바꿔 입으며 우리만의 작은 유희를 즐겼다. 활짝 웃으시던 그 옛뎌 모습의 사랑스럽던 할머니가 지금도 가끔 생각나 미소가 지어진다. 할머니는 그때 잠깐동안 꿈 많았던 어린 소녀로 돌아 가셨던 걸까?

할머니의 삶을 상상해본다. 소녀 시절엔 어떤 꿈들을 꾸셨을까? 나이가 드셨어도 호기심과 궁금하신 것이 이렇게도 많으신데...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이야기나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셔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자기보다 15살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과 중매로 결혼을 하셨던 것일거다. 그래도 60이 넘는 할아버지가 15,16살 어린 소녀를 아내로 데려가는 것이 다반사인 이곳에서 할머니는 운이 좋으셨던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 하셨다 한다. 내가 있는 그 짧은 동안에도 가난한 15세의 소녀가 70은 넘어 보이는 뚱뚱한 할아버지에게 시집가는(팔려가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불평등하고 억울한 구조속에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어떻게 지켜내 실 수 있으셨을까? 존중받는 아내와 어머니로 이제는 당신의 말을 하리게 된 이 삶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홀로 외로우셨을까?

자신을 내어 주고 내어 주어 까맣게 타 들어간 심장과 손바닥 가득 배긴 굳은살을 먼 외지에서 온 나에게 내비치셨던 것은 내가 오랜 세월 할머니를 얹어 메고 있는 것들에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거다. 할머니는 통찰력이 있으셨고 타인을 친구로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했던 것은 할머니에게서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평생 돌봄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 피로한 삶이 할머니를 망가뜨리지 못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삶에 충실했다. 부족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했던 삶을 이분은 당당하게 마주하고 당신 안에 있는 빛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비록 구조를 바꾸거나 불의와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품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셨다. 그래서 할머니의 인생엔 유머가 남아있다.

지금 나는 내 주위의 많은 빛나는 여성들을 보고 있다. 그들은 이 구조적 불의에 대항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으려 분투한다. 그들의 이름과 존재를 걸어 그들의 권리를 찾아 가고 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세상을 꿈꾸며 구조적 약자의 위치에서 보호받는 자로 있기를 거부한다. 이제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한다. 그들은 각자의 존재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혐오가 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헌신과 유쾌함이 상호 작용하는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다.

theFRONTIERS

# 코로나 바이러스, 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가?

송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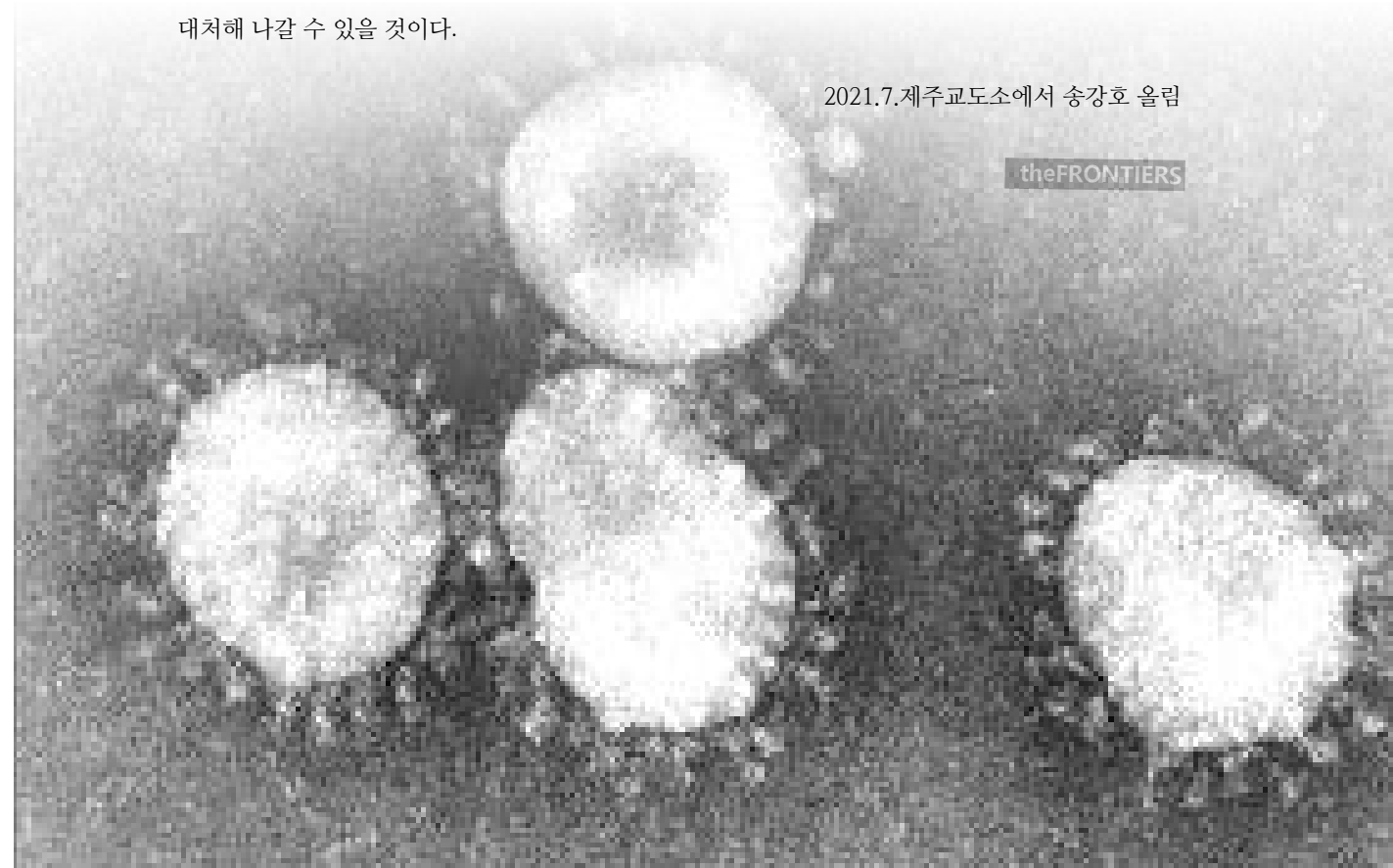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전 세계적 재앙 속에서 왜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게 기적적인 변신을 가능하게 하셔서 인류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계속 몰아넣으시는 것일까 자문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겪는 불행이나 재앙의 의미를 묻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어지는 현실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한다 해도 나는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다. 신(神)을 믿는다는 것을 미신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논쟁으로 설득할 능력은 없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델타 변이도 모두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재앙인지 축복인지는 우리의 해석에 달려있다. 14세기 유럽을 폐허로 만든 페스트 같은 무서운 질병도 축복이냐고 물을 지도 모르겠다. 나는 감히 그렇다고 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를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이라고 믿는 거다. 불행처럼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가 죽고나서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 나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는 것은 나의 신념이다. 그것이 재앙이나 불행의 외피를 쓰고 다가와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축복으로 접수할 거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속에서 창궐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먼저 인간들의 무제한적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와 동물들의 생활권의 노출로 인해 천갑산이나 야생박쥐들에게 기생했던 바이러스가 그를 침범한 인간에게까지 전염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무제한의 탐식과 끝없는 욕망과 쾌락추구가 결국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불러들였다.

**지**금 인류의 공적이 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나 무기는 아무 효능이 없다. 오히려 바이러스는 군대라는 밀집사회와 철분을 통해 더 잘 퍼지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타인의 날숨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신체를 청결하게 닦아서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접촉이 잦은 식당, 주점, 학교, 교회 등에서 쉽게 전염된다. 이 모든 밀접 상황은 대부분 도시에서 형성된다. 인간이 농촌과 자연을 등지고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얻고 더 큰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도시 문명이 창조된 것 아닌가?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자연을 배반하고 파괴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대도시들이 끝없이 소모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 지구는 고갈되고 있으면 그 배기 가스는 대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빌 게이츠까지 나서서 이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도저히 수습할 수가 없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겪고도 핵발전소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아집이거나 이해관계로 인한 집착이다. 인간은 반드시 실수한다. 원전은 그 실수를 지옥의 묵시록으로 만든다. 한 번 터진 원전 사고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원전의 폐기물은 우리 후손들이 10만년이 넘도록 대대손손 자본과 인력을 들여 감시하고 보존해야 할 위험한 쓰레기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가 도시 문명을 만들게 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헌팅 포차나 룸살롱, 나이트클럽들이 직격탄을 맞고 러브호텔들과 향락시설들부터 파멸하고 있다. 군대와 군시설, 무기와 군 장비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요 국가의 자원을 불필요하게 허비하는 폐기처분 대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도 적지 않아 이들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불로소득을 누리는 토지주들과 건물주들에게서 정당한 토지세와 부동산세를 거둬들여 힘겹게 살아가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탐욕과 무절제로 일그러진 현대문명을 반성하게 하고 자연의 의미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의 팬데믹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이 사태를 통해 인류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경종을 울리며 기회를 주고 있다. 만일 인류가 자신의 존재방식과 의식구조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를 거부하고 단지 바이러스 퇴치에만 매달린다면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더 참혹한 전대미문의 재앙이 닥쳐와 인류 사회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도시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부의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전쟁과 군사력에 자원과 인력을 소비해온 관행을 타파하자. 지나친 탐욕과 무절제한 방종을 삼가고 자족하는 삶을 살자. 자연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보다 병든 우리 의식과 삶의 태도를 먼저 고쳐야 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이야말로 면역력이 강한 사회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사회적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이후에 또 다른 공공의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에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21.7.제주교도소에서 송강호 올림

theFRONTIERS





# 군산 평화 박물관 방문기

윤혜성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제주 강정에서 군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다. 군산에 평화박물관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강정에서 평화활동을 함께하는 평화단체 ‘평화바람’이 군산에 평화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강정에서 함께 하는 동료로,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박물관을 찾았다. 비행기를 타고 먼저 간 곳은 평화바람의 숙소이다. 평화바람은 군산 미군기지 근처에 숙소를 두고 있다. 평화바람의 발자취를 본다면 미군기지 근처 시골마을에 숙소를 가진 이유를 알 수 있다.



평화바람은 2003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정부의 방침에 평화의 맞바람이 되고자 결성되었다. 문정현 신부와 1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으로 시작했다. 시작은 작은 버스를 개조한 ‘꽃마차’로 평화를 싣고 전국으로 평화유랑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후 대추리, 사대강 살리기, 서울 용산참사 진상규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 영도 한진중공업과 해고노동자 농성장 등 평화가 깨어진 현장에 함께 연대해 왔다. 현재는 제주해군기지로 깨어진 강정마을과 미군기지에 빼앗긴 군산 옥서면에서 평화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바람의 고단하던 여정과 다르게 숙소는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평화를 바라는 손님을 환대하는 듯 포근한 느낌도 들었다. 거기에 어깨에 진 짐을 풀고 평화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화박물관에 도착하니 아직 개관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었다. 특히 건물 외곽에 붙어있는 꽃마차가 눈에 띄었다. 전국을 다니며 아픔이 있는 현장을 달리던 꽃마차는 이제 평화를 알리는 박물관을 마지막 자리로 잡고 있었다. 내부에는 소외되는 이가 없이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배치도 인상적이었다.

군산평화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평화로 걷는(풀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게 서로 어긋매끼게 끼거나 걸치는) 군산’이다. 전시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후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채 이어지는 군산미군기지를 조명한다. 그리고 ‘무기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군사안보에 저항해온 평화 운동을 소개하고 했다. 초대 관장이신 문정현 신부님은 ‘군산시민도 인산 안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지낸다’며 ‘시민들에게 평화교육과 서해안 전쟁벨트 현장실상을 알리기 위해’ 평화박물관을 만들었다고 박물관 취지를 밝혔다.

군산평화박물관 전시는 1부 ‘군산미군기지와 군산평화운동’, 2부 ‘국내외 평화운동’, 3부 ‘하제와 땡나무’, 4부 ‘평화바람이 걸어온 길’로 구성되었다.



1부 전시에서는 군산미군기지의 시작과 확장에 맞서 온 군산평화운동을 연대별로 소개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태평양전쟁 당시 가미카제 훈련을 했던 다치아라이 비행 학교 자리에서 시작했다. 이후 점차 몸집을 키워 지금은 군산시 옥서면(20.88km<sup>2</sup>)의 61.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지 확장을 막는 운동



을 시작으로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국민 행동, 군산평화대행진, 팽평문화제 등 활동을 소개한다. 또한 신정원 작가의 모션그래픽으로 서해안에 있는 군산, 평택, 제주 그리고 성주와 함께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서해안 전쟁벨트’를 ‘평화벨트’로 전환하자고 전한다.

2부 전시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평화운동과 군사기지 저항 사례를 소개한다. 평택, 새만금, 성주, 제주강정,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오키나와, 필리핀, 하와이, 라틴아메리카 등 각 사례에 대한 설명, 사진, 김도형 작가의 삽화를 통해 전세계 평화운동을 볼 수 있다.

3부 전시에서는 김도형 작가의 영상을 통해 하제 땡나무를 만날 수 있다. 바닷가 마을 상제-중제-하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 군사기지로 상제와 중제 일부가 없어졌다. 그리고 미군기지가 들어서며 중제도 없어지고 2001년 탄약고 안전지역권 확보 강제토지 수용으로 하제까지 사라졌다. 주민이 떠난 자리에 600년된 땡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얼마전 시민들은 이 땡나무를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로 현재 전라북도 도지정 문화재가 되었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는 땡나무 앞에서 팽평문화제가 열린다.

4부 전시에서는 ‘평화가 무엇이나’를 주제로 쫓겨나고 빼앗기는 현장에 연대해 온 평화바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문정현 신부의 서각, 노순택 작가의 사진, 평화바람의 영상 5편 등 긴 세월 아프지만 평화를 꿈꾸던 현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이처럼 군산평화박물관은 평화바람이 걸어온 발자취와 함께 현대 평화운동의 흐름을 함께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사건에 끝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인 군사화의 현장을 알 수 있다. 군산평화박물관은 전시를 넘어 군산미군기지를 탐방하는 평화순례와 국내외 평화활동가의 강연, 평화문화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지 확장과 군사화, 그로 인해 사라져가는 평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군산평화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외관 페인트칠을 도와주었다. 페인트칠 하는 동안 지나가던 주민, 학생, 관광객이 평화박물관이 생긴다며 관심을 가지고 사진도 찍어갔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어떤 것인지 알진 못한다. 박물관에 들어온 이들 중 어떤 이는 자신이 생각한 평화와 달라 거부감을 느낄 지 모른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알지 못한 평화와 현장을 보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산평화박물관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할 평화가 무엇이며 그 현장이 어디인지를 담아내고 있다. 군산평화박물관을 통해 평화가 깨어진 곳이 연결되고 그곳으로 평화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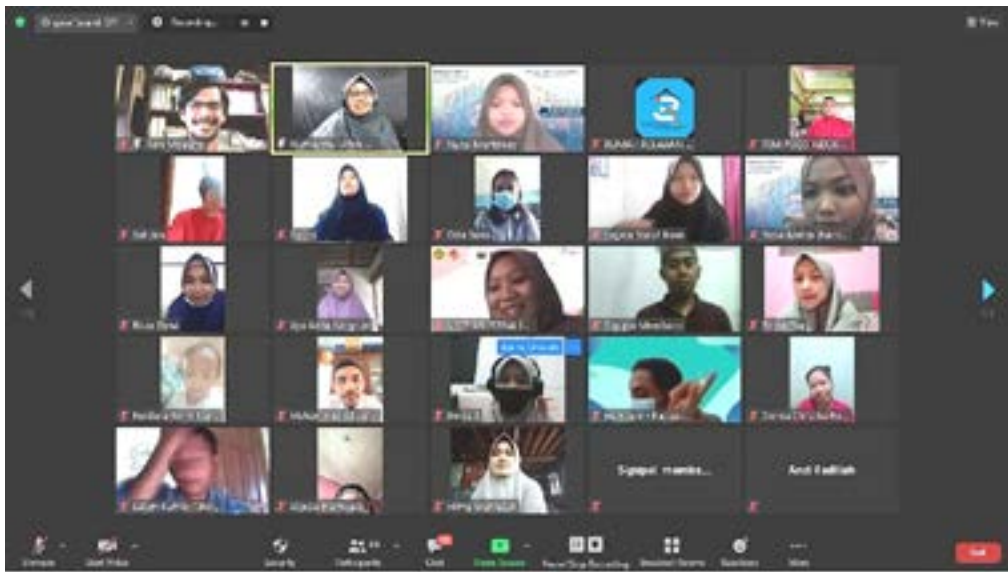


theFRONTIERS

# 꿈선생님 미나가 나누는 꿈도서관 이야기

미나

**3**R(rumah relawan remaja)에서 진행하는 꿈도서관이 일년 동안의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며 6개 지역의 마을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5일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3일째 온라인 발표와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일년동안 힘써 꿈도서관을 운영했던 세명의 꿈선생님 Riska Malda Ponna, Nurul Muntaway 및 Rian Maulana의 나눔입니다. 웨비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7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Rizka Malda는 2년차 꿈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꿈 선생님은 가르치는 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과 마을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역시 배우는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년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다시 지원한 것은 꿈 선생님이 정규 교사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마을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선생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대하기 보다는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외적인 것들이 벗겨진 상태에서 진실과 성실함과 열정이 없이는 아이들에게서 우리 스스로 권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의 설정들을 맺고 난 후에 꿈선생님은 아이들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들의 잠재적인 능력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

**두** 번째 Nurul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Nurul은 1년차 꿈선생님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마을에 배치되었을 때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난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정해진 수업 공간을 벗어나 아이들이 냇가로, 산 위에 펼쳐진 풀밭으로 가기를 요청할 때 당황했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열린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들어 내야하는 수업 일정은 터무니없는 욕심 같았습니다. 제 자신이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놀면서 아이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속에서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는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연이 주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들에 제 안에 있는 교사 본능이 올라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민감하게 아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계획을 수정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 좀 더 성숙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Rian Maulana가 나누었습니다. Rian은 마을 공동체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안에서 겸허한 태도가 주는 유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외부에서 온 저희들에게 친절한 마을분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소통과 지역 언어에 대한 존중이 관계를 맺어 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리안의 말입니다. “꿈꾸는 마을 도서관은 마을안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저희에게 여러가지를 부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을의 문제에 저희를 조정자로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나 맥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줬던 세분의 꿈 선생님과 여러 질문들을 해주었던 온라인상의 참가자분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theFRONTIERS



# 육지로 올라왔다 바다로 간 배

타마

2021. 5. 9 배 들었습니다.

“후두두두둑”

5.5톤 크레인에 매달린 5톤 조나스가 번쩍 들려 낸 첫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마냥 그렇그런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선체에 매달린 수많은 바다 생물. 미역, 따개비, 굴, 게.. 하나의 산호초가 선체 밑에 뒤엉켜 있었다. 그 생명이 떨구는 바닷물 소리에 우리는 마치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들린 듯이 탄식을 뱉었다. 혹은 오래된 바다 거북의 등딱지를 바라보는 듯이 낯을 잃고 선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만난지 거진 8개월만에 기어코 들어낸 것이다. 작년 여름부터 실험은 그러했다. 줄던가 스스로 만들던가. 하나하나 천천히 파고 들었다. 새는 물은 바가지로 퍼냈고 기름 묻은 물은 돌에 정화시켜서 버렸다. 카약 패들을 들고와선 부러진 프로펠러를 대체해보겠다고 노를 저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험해 보고, 이젠 들어서 고치자. 하니 벌써 반년이 지나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 목포도 아니오, 부산도 아니오, 제주도요, 요트 한 척이 어색하게 떠있는 조그만 항구 강정항. 공중화장실로 쓰이는 어색한 크루즈항만큼 낯선 요트였다. 그래서 요트를 들어올리기 위한 인식도 장비도 전무했다. 저 멀리 제주 북쪽의 김녕항의 공공크레인은 하필 고장이고, 옆 동네 서귀포항은 낯선 요트가 왜 여기와서 드느냐고 질색이고. 강정항의 어촌계는... 긴 시간과 긴 사연 속에서 이 배가 별로 달갑지 않은 듯했다. 그렇게 배를 들자! 라는 이야기가 무색하게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여름으로 향했다.

그래서 동균 삼촌의 존재는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의 낮가림을 도맡아 소통해준 하띠까지..) 요트 불모지 강정에서 손수 배를 놓기 위한 선대제작을 도맡아주고, 스산한 어촌계의 분위기 속에서 배를 들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5월 초, 드디어 배를 들기 위한 물밑 작업이 완료되었다.



들어올린 배

길명들은 이른바 백수건달이지만 막상 때가 다가오니 무서운 집중력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 장터란 걸 열어보자. 이름은 배들장 어때. 내일 크레인 연락할까. 아니 날씨가 좀 흐려. 그럼 모레하자. 5월 9일 일요일. 목요일부터는 비가 오네. 그러면 삼일동안 짝시게 작업해보자. 도시락을 준비하고, 모자란 공구는 마을에서 빌리자. 주변에 사는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작업하자. 그렇게 즉흥적인듯 계획적인듯 배들장이 멋지게 시작되었다.

2021. 6. 6 배가 바다로 내려가면서

## 1. 放生

정확히 한 달. 육지에 올라왔던 배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달이 한 번 차고 기우는 시간이었다. 배를 돌려보내면서, 언젠가 친구들과 절에 놀러갔던 날이 생각났다. 무슨 명절인지 무슨 나라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연못에 거북이를 풀어주었다. 잘 가. 너는 이제 네 세계로 돌아가는 거야.

## 2. Prop, Plastic, Sanding, Paint, Lift



배 밑 청소



배 바닥 페인트 칠

한 손에 잡힌 거북이와 달리 배는 참 컸다. 그리고 그 커다란 인공물을 다루기엔, 다시 여러가지 것에 기대야 했다. 돈 -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재료를 사게 되었다. 10m, 5ton에 육박하는 무게를 들기 위해 크레인, 그리고 그 큰 배를 밀어내는 프로펠러를 정비하고 부품을 다시 구매하고, 따개비를 떼어내고, 거친 몸체를 그라인더를 붙잡고 갈아내고, 구멍 난 틈새를 메우기 위해 유리섬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다시 그 위에 도료를 두껍게 발라주었다. 흩날리는 페인트 가루, 퍼지는 화학 약품의 냄새... 돈, 자연, 인공, 기술, 다시금 여러가지의 이슈들이 우리 사이에 떠올랐다.

## 3. 소통, 이야기, 일, 놀이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작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빛났다. 예컨대 작업을 하며 모두의 감각이 조금씩 달랐다. 누구는 여기까지면 끝이고 누구는 저기까지는 해야지 시작이고, 누구는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누구는 이게 중요하지 않는 과정이었고. 풍하기도 분하기도 신나기도 만족하기도. 각자는 다양한 감정의 빛깔을 최대한 드러 내려 노력했고, 각자는 그 이야기를 최대한 귀기울여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두 모호해졌다. 우리가 소통하며 함께 하고 있는 '무엇'이었다. 페인트를 칠하기도, 강정천에서 수영을 하기도, 월평 동해물에서 스노쿨링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배



배 바닥 수초와 따개비 청소



작업하러 가는 길



육지로 올라 온 배





인간띠잇기에서 바투카다 북을 치는 멤버들



[교회 밖  
현장실천]

## 그리스도인의 직무

이재광, 이재혁, 이종민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어떻게 지난지도 모른 강정마을에서의 2박 3일이 지나자,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맺혀 있음을 깨달았다. ‘평화’ 익숙하면서도 참 낯선 그 말이 강정마을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강정에서 온 몸으로 맞이한 올 여름 첫 무더위는 실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더위 속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앞으로 우리의 삶에 꽃 피울 ‘평화’라는 삶의 방식은 ‘두렵고 설렘’이라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무더위를 잊게 했다.

강정에서의 3일은 어느 하나 익숙한 것이 없었다. 하피가 ‘게스트하우스’라 표현한, 가파른 계단 위에 위치한 컨테이너와 아샤가 집에 있던 재료로 똑딱 만들어낸 마라탕, 사하자라는 이름보다 더 단순한 그의 삶과 결단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함’, ‘편안함’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외에도 낯선 이들과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과 춤을 추는 인간 띠 잇기 등을 우리를 ‘불편함’으로 이끌었다.



인간띠잇기

을 하기도, 인간띠잇기에서 바투카다 북을 치기도 하고, 그 어떤 것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었다. 흔히 말하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아니다. 일과 생활과 반반 후라이드 양념처럼 나눠 먹고 싶은 게 아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활동에서, 따로 또 같이, 집중하고 몰입하며 감정을 존중하고, 욕구를 보듬어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 나누기보다는 경계를 부수고 뒤섞어 버리기.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미세한 과정의 순간을 모두 즐기기. 지난 한 달은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있지 않았을까?

4. 고맙습니다.

“축하해요! 수고 많았어요! 대단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큰 축하의 말을 소리치고 싶다. 하루하루 잘보냈다. 너와 내가. 각자와 우리가 그렇게 뒤영졌던 강정에서 보낸 한 달의 시간을. 지금 마을 사거리 여기저기에 누구누구가 소장이 났다고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게 뭐라고. 이거야 말로 대단하고 진짜다. 이제 바다로 간 배 위에서 우린 또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어떤 꿈을 꾸게 될까?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시간들이 펼쳐질 것만 같다.

고맙습니다!

잉앵, 연재, 아샤, 동균삼촌, 영우삼촌, 서희, 문신부님, 늘보, 자리타, 지산, 준후, 타마, 하피, 수산, 사하자, 희수, 도랑, 차영, 산호, 지중혜, 슈슈, 이상, 그렉, 크레인 기사님, 기술자님, 기술자 동행인

(사진: 늘보, 수산, 준후, 리타)

theFRONTIERS



14 / 개척자들



알뜨르비행장 탐방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낯섬’과 ‘불편함’속에 알 수 없는 편안함이 스며들었다. 게스트하우스는 머리 둘 곳 없었던 청빈한 예수의 삶을 경험하게 했다. 아샤의 마라탕은 맛이 좋았다. 그 맛 좋음이 낯선이와 식사하는 불편한 마음을 녹게 하고, 따뜻한 한 마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현대의 매개체가 돼 주었다. 사하자의 단순함과 하피의 기성교회로부터 떠남은 매순간 우리에게 ‘예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도전을 일으켰다. 편안함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낯섬과 불편을 없애는 것이 아닌, 지극히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개척자들 외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과 장소, 이야기를 접했다. 책상에 앉아서 접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에 기뻐하며, 평화를 잃은 채 국가의 폭력 앞에 선 많은 이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졌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이 아름답게 버무려져 있는 평화의 마을 강정은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때로는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



멧부리 소개

“안전하게 난 평화의 길은 없다.”는 말이 가슴을 울린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라는 말을 잊고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울림이 아닐까. 이제 이 철저한 반성의 울림은, 우리를 평화로 향하게 하며, 평화로 살게 하는 다짐의 울림이 됐다. 우리는 2박 3일이라는 짧지만 영원할 시간, 평화의 마을 강정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케 하라”는 성서의 말씀을 살아내는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아마 아샤가 로힝야 친구와 한 약속에 매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에 매일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직무’를 깨우쳐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 담백하고도 따뜻한 지지를 보내준 개척자들의 사하자, 하피, 아샤에게 감사드린다.

2021.07.05.-07. 평화, 강정마을에서.

개척자들 / 15



# 60 이후의 삶은...

조경래

얼마 전 선배 언니와 통화를 하던 중에 나이 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선배 언니가 귀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60 이후의 삶은 덤으로 회개하라고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의 흑백 환갑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4남매 내외가 모두 혼인할 때처럼 사모 관대와 원삼 쪽두리로 단장하고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내가 어려서 알 수 없었지만 환갑이 지닌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재유럽 장신 동문회로 마울브론 수도원을 열렬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울브론 수도원은 헤르만 헤세가 수도원 학교를 다니면서 ‘수레바퀴 아래서’를 쓴 배경이 된 곳입니다. 돌로 된 수도원 건물 모두 수도사들이 지었다고 하는데 당시 수도사들의 평균 수명이 30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동과 난방도 없는 돌로 된 건물 바닥을 맨발로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병든 수도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만한 아래 공간과 4~5평 정도 되는 위 공간으로 된 2층 구조의 방에서 환자들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 공간에서 장작불을 지피면 그 온기가 네 귀퉁이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기도 올라갔을 그 공간을 보며 우리의 온돌이 열효율 측면에서나, 친인간적이라는 면에서 얼마나 우수한 것인지를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는 벌써 내가 그들 수명의 두배를 넘게 살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회개할 일이 두 배로 많다는 사실이 더 도드라집니다.

## 비겁한 감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마음은 어리고 그 철없는 마음으로 최근에 재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를 읽었습니다. 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를 1권에, 1948년부터 1989년까지를 2권에 담은 소설은 재일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전쟁이 끝나도 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내몰린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 자신이 1989년 예일대학에 다닐 때 초청강연에 온 일본 선교사가 전해준 어떤 한인 소년의 자살 사건에서 이 소설은 출발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6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이유를 찾던 중 반 학생들이 “죽어, 죽어, 죽어”, “너희 나라로 가!”, 더러운 돼지 같은 놈” ... 등등을 써놓은 졸업앨범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의 충격은 그후 그녀의 삶의 과제가 되어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소설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구비구비 기막힌 삶을 들여다보며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비겁한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끼니 시간이 늦어져도 손이 떨리며 어지러운 저혈당 증세와 두통이 찾아오는 저는 그 시절에 살았더라면 진작에 굶어 죽었거나 쉽게 변절자가 되었을 것만 같아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난 왜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보니 전쟁이 끝난 몇 년 후에 태어나 판자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전후의 결핍 속에서 자랐고 산업화와 군사 독재, 민주화의 과정을

극히 소극적으로 그 일부분을 지켜볼 수 있었던 저는 나를 둘러싼 환경의 우연과 좁은 삶의 궤적에서 많은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친코의 주인공들에게 느끼는 부채감에 더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강요받은 희생 위에 살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지 가늠해 보기 위해 지금을 살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시간과 공간에 태어나 그 한계 속에 살지만 그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려는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기후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넘어야 할 산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전쟁은 인재임에 틀림없지만 기후 변화는 천재지변이어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너무 커서 개인들은 무력감을 느끼다가 결국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헨 옷 수거함 속 옷들은 어디로 갈까? (헨 옷 처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구수는 2배도 늘지 않았는데 의류 생산량은 무려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입겠지 생각하며 쉽게 버리는 헨 옷들은 헨 옷 수출업체의 선별장으로 가서 그중 5%만이 빈티지샵으로 걸러지고 나머지 95%는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됩니다. 한국은 이런 중고 의류 수출에서 5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입게 되면 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있는 중고 의류 시장에는 매주 1500만 개가 넘는 옷들이 들어오고 절반 정도는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불태우거나 대충 매립되거나 여기저기 널려있거나 강에 버리거나 해서 아크라 시장 근처에는 헨 옷과 물을 구분할 수 없는 쓰레기 강이 생겼다고 합니다. 강은 바다로 흘러 들고 옷쓰레기들은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옷감에 염색을 하는데 엄청난 물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흰색 면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2700리터라고 합니다. 의류산업에서 나오는 폐수의 양이 전체 산업용 폐수의 20%를 차지하고, 헨 옷뿐 아니라 재고로 쌓이는 새 옷도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선박과 항공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다고 합니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옷에서는 세탁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비록 너무 큰 주제임에도 의외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느껴집니다. 비닐이든 플라스틱이든 옷이든 절반만 줄여 지구의 피로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해볼 만한 일이니까요.

오늘 아침 아들의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를 달면서 가느다란 실 몇 가닥이 이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작은 실천으로 모인 한 올 한 올의 실들이 인류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체의 집인 지구를 낭떠러지에서 끌어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돌이킬 수는 없어도 내일이 있으니까요

이어진겨레

레스토랑 일을 그만두고 간단한 휴일을 맞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선사인 코스트라는 이름이 예쁜 동네에서 사흘 동안 지냈어요. 소란스러운 앞동네 골드 코스트와는 사뭇 다른 조용한 동네였습니니다.

우리의 숙소는 에어비엔비로 예약한 작은 집의 방 한 칸이었어요. '엠(Em)'이라는 이름의 주인 할머니는 고즈넉한 동네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여행들과 예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스무 살에 떠났던 긴 여행 이야기, 보트 위에서 세계일주 이야기는 안타깝고 유쾌하고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했지요.

거실 한 편에 엠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 공간이 있었는데, 여러 문명의 설화를 상상해 그리는 것이 그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판화와 유화, 조각해 만든 오브제들이 멋졌어요. 그림을 좋아하는 저와 요가 수련을 즐겨워하는 청림, 여행과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차가 없습니다. 엠은 버스와 기차를 타고 왔다는 우리 말을 듣고, 원한다면 어디든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절은 시절 자연을 공부했었던 데다 선사인코스트 가이드 브로슈어를 디자인한 엠은, 무척 자세하게 이곳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가진 신비한 전설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은 오래된 원시림인 메리 케언크로스 보존구역입니다. 환경운동가 메리 케언크로스가 선사인 코스트 지역의 벌목사업에 반대하며 원시림을 지켜낸 것을 기념해 이름붙인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아열대 저지우림의 생명체들이 삽니다. 붉은 금(gold)이라는 별명으로 호주 침탈시대에 벌목대상이 되었던 붉은 삼나무도, 기후가 변하며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란디스 유칼립투스도 남아있습니다. 지저귀는 다양한 새들과 포유동물, 놀지 생명체와 박쥐, 곤충들. 숲한 생명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서 느끼는 낯선 편안함이 즐겁습니다.

최근에 연락한 친구가 올해 한국의 장마는 무척 짧았으며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고, 쓰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자연을 지키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 처참합니다.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함에 울쩍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바꿀수 없다는 무력감도 듭니다. 마음은 늘 흔들린다 하던 송 선생님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기도를 하라던 송 선생님의 진솔한 조언이 생각납니다. 밥을 짓는 일이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던 조 선생님의 고백도 생각나고요. 그 덕에 오늘도 전 메리 케언크로스만큼 크진 않아도 지키기 위한 자그마한 행동을 사부작 사부작 해봅니다. 기후를 예전으로 돌이킬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당장에 내일은 있으니까요.





# ROHINGYA

에서 온 편지

지난 6월, 7월 로HING야난민촌에서 온 소식을 전합니다.

## 1. RTS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우리는 세계, 국제기구, 지역 사회 및 세계 지도자들에게 방글라데시의 로HING야족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로HING야족 아이들은 교육, 사회, 인권, 기본권, 적절한 치료 등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 국제기구 및 세계의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보는 창이고 이 세상에서 교육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등한 권리와 안전, 존엄성을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송환되어야 합니다. 송환하는 동안 우리는 국제 기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민으로 이곳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우리의 희망과 삶은 점점 더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브라더송을 기억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우리의 수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Class7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Class8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 RTL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학생들과 몇 가지 주요 메시지를 가지고 작은 활동을 했어요. 이 내용을 플리마켓 행사에서와, 한국에게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래요.

방글라데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봉쇄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캠프의 폐쇄 조치를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7월 1일부터는 아무도 캠프를 나갈 수 없을 것 입니다.

결국 폐쇄조치에 따라 우리는 학교를 닫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전국에 엄격한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에 난민촌 내 집단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 동안 학교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장마철 튼튼한 신발과 우산을 나눠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난민의 날에 모금한 후원금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 총 46명에게 우산과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로HING야족 학생들이 계속 얼굴에 미소를 짓게해주세요. 여러분은 박탈당한 공동체의 얼굴에 미소를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산과 신발을 배분하는 위원회



RTS우산과 신발을 선물받은 학생들



RTS 신발 선물



RTL 세계 난민의 날 수업



RTL임신여성지원 20 / 개척자들



RTL난민의 날 피켓팅



RTL우산과 신발을 선물받은 학생들



RTL 간식시간



우산 선물

## 3. RYC

지난 6월 우리의 오랜 지원대상 가정인 로키마 할머니가 많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정부 병원에서 진단했지만, 난민촌안에서는 더 나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할머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고, 결국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팀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료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우선 우리는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을 위해 큰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결정하였습다. 할머니를 난민촌 밖으로 모시고 가기위해서는 CIC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1000tk(한화로 약 1만 4000원)의 돈을 지불하고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콕스바자르에 위치한 큰 병원에서 피검사와 엑스레이등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오른쪽 신장에 낭종이있다고 진단하였지만, 할머니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할머니에게 2달분의 약을 처방했고 우리는 다시 난민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처방받은 약을 대신 구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세계난민의 날’에 난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우선 우리는 2021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감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그들의 집을 떠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난민들도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6월20일 세계난민의 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간의 모든 슬픔과 전 생애에 일어났던 끔찍한 상황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HING야족은 이웃나라 방글라데시로 도망와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웃 국가들로 도피하여, 이 지역(동남아시아지역)에 복잡하고 인도적인 상황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3백만 명에 달했던 미얀마 로HING야족 인구는 인종청소와 대량학살 같은 대규모 박해로 1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국가의 억압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937년 버마가 영국령 인도로부터 분리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아라칸의 대지는 로HING야의 피로 자주 물들었고, 이로 인해 로HING야의 대규모 탈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로HING야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 정부의 (로HING야를 박해 하기위해) 계획된 작전들인 1978년, 1991년/1992년, 2002년, 2010년, 그리고 2017의 작전은 더많은 피해자들과 피난민들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대량 학살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우리 세대의 삶은 로HING야 난민 임시 수용소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삶을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은 좋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삶에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난민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시민들에게 해결능력을 갖춘 해결책을 원합니다.

(RYC 멤버 아민, 누르 바사드)



콕스바자르 병원을 방문한 아민과 로키마 할머니



RYC 무료 의료 캠페인



theFRONTIERS



# JEJU & 에서 온 편지 공평해



활동가 에밀리 사람 책



활동가 호수 사람 책



활동가 정선녀 사람 책



상생협약선언식 규탄 기자회견



해군기지 진상규명 기자회견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5월부터 7월 초까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올해에도 세계평화대학이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학기에는 톨스토이의 비폭력 수업과 활동가 카레의 다문화 영어회화, 강정활동가 사람책을 진행했습니다. 톨스토이 수업은 톨스토이의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를 읽으며 토론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기존 기독교 신앙의 모순을 꼬집으며 진정으로 복음서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 속 국가, 군대, 사법기관 등 폭력적 구조에 무저항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세상 속에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카레의 영어 수업은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만났을 때 영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부터 길을 묻고, 건강에 대해 설명하는 것, 공항에서 대처하는 법 등 여러 주제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원어민 수업이지만 한국인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카레 덕분에 부담 없고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강정 활동가 사람책은 매시간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는 활동가 에밀리, 6월 18일에는 활동가 호수, 7월 6일에는 활동가 정선녀가 사람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대만에서 태어나 지내며 국가 안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은 국가 정체성을 넘어 지구시민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호수는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삶의 변환점과 공동체와 평화의 가치를 알아간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선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지내며 경험했던 제주도의 자연과 해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연에서 발견한 생명의 소중함과 이에 대비되는 난개발에 속상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책은 각자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평화를 꿈꾸는 시간입니다. 사람책은 학기에 상관없이 한달에 한 번 진행됩니다. 다음 사람책은 어떤 평화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5월 31일 강정에서는 상생협약선언식이 있었습니다. 도의회, 제주도정, 마을회가 모여 사과와 상생협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과와 상생을 말하지만 현실은 정치적 업적, 경제적 이익에 눈이 먼 기만적 행사였습니다. 이날 활동가들과 반대주민들은 기만적 상생협약선언식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가차원의 진상규명도 없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 할 수 없습니다.

6월 30일에는 도의회 일정에 맞춰 해군기지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도의회는 강정마을 갈등 회복을 위해 상생협약 보완과 진상규명 촉구에 대한 안건으로 2가지가 올라가 통과되었습니다. 국가폭력과 무력으로 만드는 평화는 깊은 상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입니다. 강정에서 있던 국가폭력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위해 투쟁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단체 브라덜 송 석방 &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로HING야난민을 위한 플리마켓



로HING야난민을 위한 플리마켓



요트를 다시 바다로



장마 대비 지붕 수리



수피아와 요트 팀 강정 방문

같은 날 서울 대법원 앞에서는 사하자를 비롯해 기독교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브라더송과 사하자, 아샤, 하띠의 대법원 선고에 맞춰 브라더송 석방과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더송은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내년 3월까지 구속됩니다. 진상규명되면 브라더송은 무죄입니다. 진실이 드러나 브라더송이 석방되고 해군기지지는 폐쇄되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6월 20일은 세계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강정에서는 로HING야 난민을 돕기 위한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이 날 여러 셀러가 모여 음식, 옷, 잡화, 타투 등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수 무명의 공연 덕분에 분위기도 한껏 올라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보고 오거나 지나가다가 발길을 이곳으로 옮긴 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로HING야 난민에 대해 알게 되고 소식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함께 해주신 분들 덕분에 셀러 후원과 계좌 후원을 합쳐 1,818,200원이 모였습니다. 이 금액은 폭우로 파괴된 학교 보수와 우산, 장화 구입이 필요한 로HING야 난민을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동참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7월 5~7일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교회박헌장실천을 강정마을에서 했습니다. 개척자들은 매년 여름에 철인3종경기를 양평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장신대 교회박헌장실천으로 신학생들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철인3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박헌장실천을 신학생 3분과 함께 2박3일 캠프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첫날은 강정마을 순례와 개척자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제주도와 개척자들 사역에 대해 듣고 오후에는 알뜨르비행장과 첫알오름을 방문했습니다. 저녁에는 활동가 정선녀의 사람책을 통해 제주도 자연과 해녀공동체, 생명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브라더송의 ‘선교와 평화’를 읽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생명평화백배와 평화미사, 인간띠 잇기 등 강정 일상평화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현장을 보며 생각을 나누었고 서로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현장에 와서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와 함께 제주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볼때마다 ‘제주도를 사랑해서 오는 이들이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되길 바라면 좋겠다.’ 생각하곤 합니다. ‘비무장 평화의 섬’이 아직 먼 꿈인 듯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모인다면 곧 다가올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평화가 이 땅에 실현되길 바라며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평화를 빕니다.

theFRONTIERS



# ACEH에서 온 편지



까주소서관 벽화 칠하기



마카사르 산덱 도서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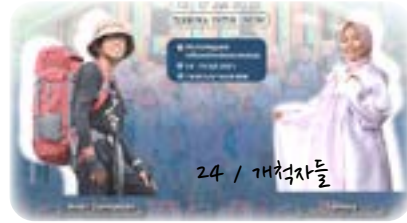
마카사르 산덱 도서관 앞에서



마카사르 산덱 도서관의 아이들



슈크리아



24 / 개척자들

온라인 꿈도서관 설명회 광고

아체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3주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5월31일 사라바루로 모니터 링을 떠나려 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취소했습니다. 날이 습하고 추워지면서 멤버 들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기침과 열이 나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 녀온 친구도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닙니다. 아체는 이전과 같은 시간에 우기와 건기가 아니라 시시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우리 의 삶의 일상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Sarah Baru 방문은 Uma가 Andri, Munt 및 Hilma와 동행하기로 했습 니다. Uma는 약 5 일 동안 Sarah Baru에 있으면서 마을 발표회를 함께 참여했 습니다. 나머지 꿈선생님들은 까주 도서관을 돌보고 3R에서 온라인 전시회 준비 와 홍보를 위해서 맡겨진 일들을 했습니다.

올해 연향전시회 담당자는Rian 과Rizka 로 결정되었습니다. 논의 과정 중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8~20일까지 로미, 아미, 살람은 마카사르를 다녀왔습니다. 발리에서 하는 국제 사회 정의 포럼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루아르 산덱 도서 관을 SIGI마카사르팀과 함께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이맘과 동네 분들이 반갑 게 맞아 주시고 br. 송에 대한 염려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함 께 항해를 했던 아부 형제의 집도 들려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6월 마지막주에 라뎡에 있는 술라이만과 슈크리아가 반다아체를 방문했습니 다. 꿈도서관에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해서 여러가지 학습에 필요한 물품들을 선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술라이만은 하루 밤을 머물다가 갔고 슈크리아는 온라인 전시회 준비와 3R에서 진행되는 프로그 램을 참여하길 원한다며 다음 주까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진 행했던 까주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함께 했습니다.

7월 3일 토요일 오랜만에 노리와 시파 그리고 이르만의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 를 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저희에게 에너지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다 들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이(2~3살) 있어서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아미는 두 곳의 시민단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는 ICYIP(Indonesia-Cambodia Youth Initiative Program)이고 다른 하나는 Dompot Dhuafa Aceh라는 곳으로 자원 봉사에 대한 섹션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단체의 핵심에 자원 하는 사람들의 봉사 정신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런 봉사자들 과의 관계와 협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런 청년들과 의 공동체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나눔이었습니 다.



3R의 여성들과 살람



재생 종이



재생종이 만들기



도서 정리

7월초부터 마지막 온라인 전시회 준비로 모두들 바빴습니다. 온라인 주제 토론과 작품들 전시를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대학들에 초대장을 나 누는 일들을 하고, zoom과 Youtube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나눔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모두들 바빠서 혹여나 서로에게 섭 섭한 것들은 없는지 마음의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 다. 천연 비누 만들기과 에코 브릭 만들기, 재생종이 만들기도 틈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살람, 피트리, 그리고 우마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에게 필기도구를 선물하기로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개의 웃음' 이라는 단체와 함께 준비합니다.

아체는 성인들에게 백신을 무상으로 맡게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해 서 아체주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백신을 맞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3R 멤버들은 백신을 맞는 것에 모 두들 동의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곳의 광고와 시간이 나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아체는 예약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도착한 순서대로 대기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백신 접종 장소에 가면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중 2명이 접종을 맞았습니다.



백신 광고

우리 모두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으로 만든 장난감

theFRONTIERS

개척자들 / 25



**흠**흠,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나무숲 세움터 중등 하늘고리를 다니고 있는 조이안입니다.

올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1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15살이 되는 동시에 중학생이 되어 새로 들어온 한 친구도 있고요.

아, 마침 저기 오고 있네요! 그럼 모두 모였으니..

저희 하늘고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앗, 한 명씩 인터뷰를 해보려 했으나 금방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소개를 해보려고요.

저기 쏫컷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차려입고 소파에 구겨져서 자고 있는

저 애는 현서예요. 어제 잠을 못 잤는지 이렇게나 시끄러운데도 잘 자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자?!?

흠.. 그리고 옆에서 놀리다가 역으로 당하는 애는 지민이예요.

하늘고리 막내로 한 살 차이 밖에 안 나지만 왠지 엄청 동생 취급을 받죠.

또, 지민이 옆에서 싸우고 있는 단발머리의 애는 수인이예요. 스피커를 아주 좋아하죠.

수인이는 절대로 놀림만 받지 않아요. 반드시 거울처럼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티키타카하는 둘 옆에서 머리를 엄청 헝클어트리곤 깔깔대는

애가 저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가끔 끼어 노는 애가 해루예요.

하늘고리 공식 회귀 생명체 양파카 (알파카의 변형 형태) 이죠.

다양한 애들이 모이니 하늘터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느 날은 찢고**

“야 이거(전등을 감싸던 종이) 찢어졌는데..? 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어느 날은 뜯고**

“어...? 이거 (소파 지지대의 일부) 뜯어졌어..”

“얼마나 힘을 주면 뜯어지냐???”

“아니 힘 안 줬는데 뜯어졌다고...”(세상 억울)

**어느 날은 춤추고?**

“으아아 간지가 차오르드아아!!! (?) ”

“ 으 아 아 아 아 아 아 ! ! ! ! ”

“봐 춤은 이렇게 추는 거야!!”

그래도 뭔갈 할 때는 항상 열정적이고 딱딱 잘 하는 학생들 이랍니...?

“야야, 내일 시험이었어?!?!? 아니라고 해줘!!!!”

“역시 벼락치기가 답이군.”

아...?

뭐, 학교생활 재밌기만 하면 됐죠!! (?)

사실 전 잘 쓸 이야기도 없고 필력도 떨어져서... 어떻게 쓰나 걱정 했는데

다행히 분량을 잘 채운 것 같아요. 네네 아마도요?

그나저나 글을 쓰다 보니 창밖이 붉은색이 되었어요.

해가 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제 숙제를 하러 가봐야겠어요! 늦으면 밀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이만 글에 마침표를 찍도록 할게요.

theFRONTIERS





2021 개척자들 살림살이

5월에 개척자들과 함께하신 후원자님

[개인]  
강민혁, 강원옥, 고애신, 고혜신, 김기수/조명희, 김기한, 김나경, 김명철, 김미숙, 김백재/이정애, 김사라, 김석원, 김선민, 김성연, 김성주, 김성한, 김세일, 김애라, 김윤희/문광선, 김은석/이종연, 김은택, 김의근, 김재홍, 김점순, 김정혁, 김종혁, 김주영, 김진협, 김창주, 김현경, 김현미, 김형민, 남기윤, 남미자, 노민호, 노진한, 류진, 문혜인, 박미영, 박태식, 박현경, 박현홍, 배미숙, 백예인, 송인수, 송혁근/유별, 신선원, 신진영, 신화철, 심지연, 안영민, 양미선, 양애란, 염창근, 오성현, 오수미, 원주신, 유익, 유혜진, 윤근휴, 윤명희, 윤창현, 윤홍순, 윤희/재원, 이규진, 이동국, 이선혜, 이성영, 이승주/이주아, 이승지, 이승훈, 이어진겨레, 이영호, 이영화, 이윤, 이종혁, 이지연(A), 이지연(B), 이충형, 이형우/권승현, 이혜진, 이화정, 임재원, 장원섭, 장은정, 정모세, 정병오, 정재우, 정현연, 조병하, 주한나/이기화, 주혜주, 최강희, 최국진, 최상아, 최지현/박정미, 최태식, 최효미, 주교선, 탁혜경, 한희준, 허유선, 현간란, 홍종원, 홍현주, 황숙영, 황의성, 황호민

[교회]  
가나안교회, 가산교회, 고기교회, 군산돌베개교회, 길음중앙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동교동교회, 밝은누리, 보광중앙교회, 사랑숨결교회, 새맘교회, 신목교회, 양주예향교회, 여울교회, 예수마을교회, 오늘교회, 용문교회, 위드교회, 은혜와평화교회, 작은예수마을, 장충단교회, 청파교회, 청파청년부, 한강교회, 함께여는교회, 화천동산교회

[단체/기업] 강정친구들, 나무숲세움터, 중미산막국수    [아채 후원] 유익, 주병춘    [공평해] 모아나

[로hing아 후원]  
남북평화재단, 대구삼덕교회권사회, 사랑숨결교회, 신목교회, 예수길벗교회, 예수마을교회, 작은예수마을, 청파교회, 팔당교회, 한강교회, 합천토기장이예배공동체, 김유경, 김정훈, 김주철, 김한빛, 김효근, 박성균, 박효정, 윤혜성, 이선화, 정재엽, 정지원, 최수인, 허영정, 황영주

6월에 개척자들과 함께하신 후원자님

[개인]  
강민혁, 강원옥, 강현식/홍미숙, 고애신, 고혜신, 권세훈, 김기수/조명희, 김기한, 김나경, 김란, 김명철, 김미숙, 김미옥, 김백재/이정애, 김사라, 김석원, 김선민, 김성연, 김세일, 김순애, 김애라, 김영미, 김윤희/문광선, 김은택, 김의근, 김재홍, 김점순, 김정미B, 김종혁, 김주영, 김진협, 김현경, 김현미, 남기윤, 남미자, 노진한, 류재일, 류진, 문혜인, 박미영, 박태식, 박현경, 박현홍, 배미숙, 백예인, 송인수, 송현석, 신선원, 신진영, 신화철, 심지연, 안영민, 양미선, 양애란, 염창근, 오수미, 오승화, 원주신, 유별/ 송혁근, 유익, 윤근휴, 윤명희, 윤창현, 윤홍순, 윤희/재원, 이규진, 이동국, 이선혜, 이성영, 이승주/이주아, 이승지, 이승훈, 이어진겨레, 이영호, 이영화, 이윤, 이종연/김은석, 이종혁, 이지연A, 이지연B, 이충형, 이학산, 이형우/권승현, 이혜진, 이화정, 임재원, 임주현, 장원섭, 장은정, 정병오, 정재우, 정현연, 조병하, 주한나/이기화, 주혜주, 최강희, 최국진, 최상아, 최지현/박정미, 최태식, 주교선, 탁혜경, 한희준, 허유선, 현간란, 홍종원, 홍현주, 황숙영, 황의성, 황호민

[교회]  
가나안교회, 가산교회, 고기교회, 과천교회, 군산돌베개교회, 더불어숲동산교회, 동교동교회, 밝은누리, 보광중앙교회, 사랑숨결교회, 새맘교회, 생명샘교회, 신목교회, 양주예향교회, 여울교회, 예수마을교회, 오늘교회, 용문교회, 위드교회, 은혜와평화교회, 인천은평교회, 작은예수마을, 장충단교회, 청파교회, 청파청년부, 팔당교회, 한강교회, 함께여는교회, 화천동산교회

[단체/기업] 강정친구들, 나무숲세움터, 중미산막국수    [아채 후원] 유익, 주병춘    [공평해] 모아나

[로hing아 후원]  
가산교회, 남북평화재단, 사랑숨결교회, 신목교회, 예수길벗교회, 예수마을교회, 작은예수마을, 청파교회, 팔당교회, 한강교회, 합천토기장이예배공동체, 김유경, 김정훈, 김주철, 김한빛, 김효근, 박성균, 박효정, 윤혜성, 이선화, 정재엽, 정지원, 최수인, 허영정, 황영주

[로hing아플리마켓]  
고길천, 김미섭, 김순애, 김정미, 박완신, 정영신, (주)페인트닥터, 플리마켓 수익금

운영성과표

( 2021기 : 2021-5 ~ 2021-6 )			
회계단위 : (전체)			
단체명 : 사)개척자들			
계정과목	합 계	5 월	6 월
사업수익	25,678,200	12,670,000	13,008,200
후원금	25,678,200	12,670,000	13,008,200
일반후원금	18,360,000	9,940,000	8,420,000
개인후원금	1,460,000	730,000	730,000
교회후원금	7,460,000	4,480,000	2,980,000
단체후원금	1,040,000	480,000	560,000
기관후원금	8,400,000	4,250,000	4,150,000
목적후원금	7,318,200	2,730,000	4,588,200
사업비용	28,644,243	12,416,926	16,227,317
사업운영비	22,797,785	9,599,872	13,197,913
사업인건비	300,000		300,000
강사비(사)	300,000		300,000
사업진행비	22,497,785	9,599,872	12,897,913
여비교통비	2,949,515	2,652,715	296,800
홍보비	371,640	347,640	24,000
물품구입비	489,840	65,000	424,840
복리후생비	15,000		15,000
통신우편비	149,630	83,670	65,960
사무용품비	120,800	47,900	72,900
임차료	920,000	460,000	460,000
차량유지비	541,382	136,481	404,901
경조비	100,000		100,000
식음료비	1,444,110	509,720	934,390
소모품비	19,000	19,000	
장소사용료	100,000		100,000
스텝교육훈련비	164,380	164,380	
회의비	170,300	114,600	55,700
운영활동비	14,939,388	4,997,366	9,942,022
지급수수료	2,800	1,400	1,400
관리운영비	5,846,458	2,817,054	3,029,404
인건비	4,900,000	2,450,000	2,450,000
급여(관)	4,900,000	2,450,000	2,450,000
사무관리비	946,458	367,054	579,404
복리후생비(관)	99,800	71,800	28,000
사무용품비(관)	5,200	5,200	
통신우편비(관)	56,340	27,820	28,520
지급수수료(관)	361,728	179,844	181,884
건물유지보수비(관)	400,000	200,000	200,000
차량유지비(관)	-156,610	-207,610	51,000
기관후원금(관)	180,000	90,000	90,000
사업외 수익	16,281		16,281
수입이자	16,281		16,281
당기 순자산의 증(감)	-2,949,762	253,074	-3,202,836



# SAEMTER

## [개척자들-샘터 공동체]

- 6/8 제주팀 샘터로, 개척자들 발송작업 & 리트릿
- 6/9 사랑채 풀 뽑기 & 오토바이 열쇠 제작
- 6/10 개척자들 5~6월호 컬러 PDF 전송
- 6/21 세진 측량에 다리 준공 이전 의뢰 서류 접수
- 7/7 한빛누리 협력 갱신 질의서 작성 송부
- 7/12 하천부지 주택 진출입로 점용허가
- 7/16 한빛누리 연간보고서 & 감사보고서 송부
- 7/17 한국공동체협의회에 경기 기도 제목 전송
- 7/16~26 개척자들 편집
- 7/22 제주팀과 샘터팀 zoom회의



## [개척자들-제주&공평해]

- 5/25 '에밀리이우다' 강정활동가 사람책(활동가 '에밀리')
- 5/27~6/1 세계평화대학 2021-1학기 중강
- 5/31 강정마을회, 도의회, 제주도정 상생협약선언식 규탄 시위
- 6/3~6 요트 세척 및 페인트칠, 정비 완료
- 6/8~9 양평 일정('개척자들'발송&회의, 샘터 정리)
- 6/18 '재미있는 정주' 강정활동가 사람책(활동가 '호수')
- 6/20 세계 난민의 날/로힝야 난민을 위한 플리마켓
- 6/26 수피아의 요트탐방팀 방문
- 6/30 브라더송 외 3인 대법원 선고 및 기자회견(서울) / 제주해군 기지 진상조사 기자회견(강정)
- 7/1~2 장마대비 노동(지붕보수, 곰팡이제거, 마당 발판 제작 등)
- 7/5~7 장신대 교회박현장실천을 캠프식으로 진행
- 7/6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잔다르크' 강정활동가 사람책(활동가 '경선녀')
- 7/8 강정천 관련 환경청 현장 실사 진행
- 7/8~9 개별 피정
- 7/12~17 군산 평화바람 방문 및 평화박물관 개관



# ACEH

## [개척자들 -아체 공동체]

- 5/27~6/31 우마, 앤드리 사라baru 모니터링
- 6/1 3R 잡지 발행
- 6/5 사라baru 마을축제
- 6/5 까주 부녀회 요리교실 후 공동식사
- 6/4~7 로미 라뎡 방문 & 도서관 수리
- 6/8 지역 라디오 DjatiFM 초대 (3R 활동 소개)
- 6/10~12 국제 사회 정의의 포럼 초대(로미, 아미, 살람 발리 방문)
- 6/14 발리 국제 학교 Green school 방문
- 6/15~20 루아오르 산택 도서관 방문
- 7/4 ICYIP(Indonesia-Colombia youth Initiative program) 강사로 초빙
- 7/5 술라이만 & 슈크리아 반다아체 3R 방문
- 7/10 아시파, 노리차 가족 3R 방문



## [개척자들-로힝야 난민캠프]

- 5/26 RTL 임신여성 영양지원 11명
- 6/2 RYC 로키마 베검 할머니가 신장결석과 염증으로 콕스바자로 이송 후 의료지원
- 6/13 RYC 의료캠페인 진행. 환자 37명에게 의약품지원
- 6/20일 세계난민의날 로힝야후원을 위한 플리마켓
- 6/22 RYC 취약계층 식량지원 20가정
- 6/25 RTL 임신여성 영양지원 11명
- 7/4 RTS 학생들에게 신발과 우산 선물
- 7/10 RYC 의료캠페인 진행. 환자 37명에게 의약품지원



theFRONTIERS

개척자들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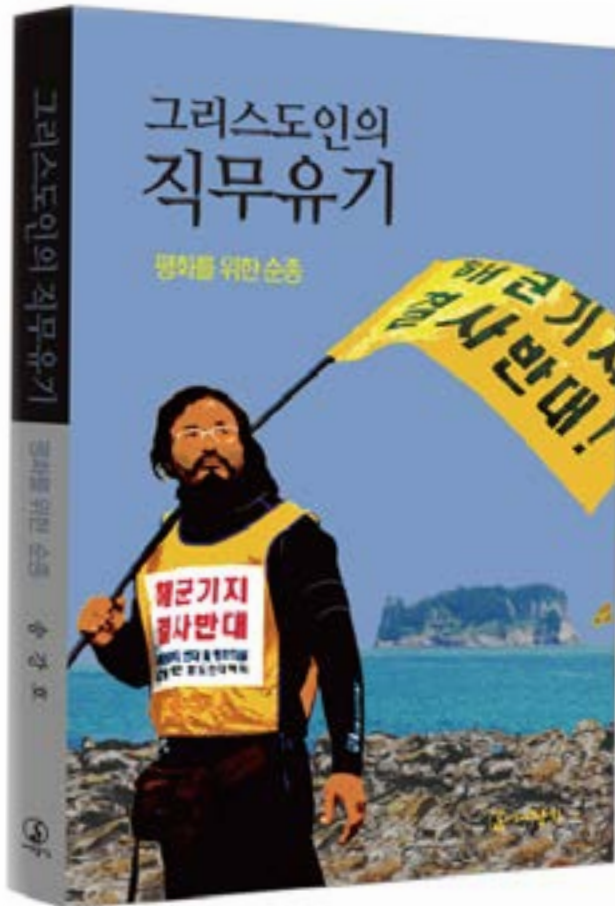
# ROHINGYA





# 브라덜 송(송강호 간사) 신간도서출판!

##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



### - 평화를 위한 단순한 순종

“이 글은 내가 개척자들과 함께해온 반전평화운동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 1999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개척자들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미 과거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확인하면 놀랍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 이 책의 출판을 결정해 주신 도서출판 대장간의 배용하 사장님과 부분적으로 글을 다듬어 주신 이종연님과 표지 그림을 제작해주신 고길천 화백님께도 감사드린다. 거칠고 투박한 나의 필체를 독자들이 깊은 이해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읽어 주기를 바란다”

2021.3.16

송강호 올림

### [개척자들후원방법]

1. 정기후원: 일정금액을 매월 후원하는 방법으로 은행자동이체나 CMS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 일시후원: 자유로운 금액을 원하시는 때에 후원. 다만, 목적후원일 경우 이름 앞에 내용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건축홍길동, 캠프홍길동, 난민홍길동)

### [후원계좌]

1. 소득공제가 필요 없으실 때: 국민 068801-04-014046/ 농협 360-01-047786(예금주: 개척자들)
2.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필수이므로 단체에 연락주세요~)  
: 국민 093401-04-124532 예금주: 한빛누리(개척자들)